

## 역사교과서 체제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개발 방향<sup>1)</sup>

김민정(서강대학교 조교수)\*

---

### 《요약》

---

본 연구는 교과서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내적·외적 체제로 구성된 역사교과서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좋은 교과서에 대한 요구에 기반을 두고 교과서를 개발할 때 교수·학습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역사교과서를 실제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서 분석 기준에 토대를 두고, 역사교과서를 선정할 때 고려한 점과 우선순위,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해 본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및 개선 요구를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렸다. 교사들은 역사교과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교과서를 선정하며, 실제 사용해 본 결과 개정 교육과정의 초점 중 하나인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연결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학습 분량의 과다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교과서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교재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의 역사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로서 파악하고 있다. 교과서가 충분한 학습 자료를 싣고 있고, 제시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가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습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식에 비추어, 교사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학습량의 문제, 학습 자료의 측면에서 탐색되어 오던 교과서 문제를 되짚어보고, 학생들의 역사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학습의 흥미와 탐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과서 편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제어 : 역사교과서, 교과서 체제, 교과서 선정 및 평가 기준, 탐구활동, 교과서 체제 개선방향

---

1) 본 연구는 2011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이며(연구과제 201110019), 이 연구에는 박진용 외(2011).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11-4의 일부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음.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minjungk@sogang.ac.kr

## I. 머리말

2007년 이래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목은 단연 역사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로 불거진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역사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아직 진행형인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역사 수업과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 수업에 쓰이는 교과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으로 규정된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 역사교과서가 짧게는 2년 정도 현장에서 사용되고 폐기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질은 교육과정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과정 개정이 파행으로 흐르면서 교과서 개발 일정이 촉박하게 설정되어 교과서 개발의 결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의 낮은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변화와 함께 체제와 형식면에서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이래 역사교과서에 학습 자료와 함께 탐구 학습 활동이 수록되는 등의 변화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과 내용을 접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하는 교과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의 깊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서 서술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접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이 적용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비판적 탐색은 전무하다.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정 정신을 반영했는지,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활동이 포함되었는지, 수업에 활용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지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또한 교과서의 형식은 진화하고 세련되어 가는데 비해, 학생들이 개정된 교과서 형식과 내용 제시 방식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교과서의 역할과 '좋은' 교과서에 대한 연구자적 시각이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실제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시각과 괴리되지 않고, 교과서 연구가 실제 수업과 학습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박진용 외, 201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질적, 양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2011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를 선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친 교과서 요소들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3년 이후 새롭게 개정될 역사교과서를 포함하여 추후 만들어질 교과서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다각도

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에 표준·기반을 두어 교과서 개발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 II. 역사교과서 체제 분석과 평가

역사교과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과 실행의 구조 속에서 교실 역사 수업의 주요 교재로 활용되면서 교수·학습과 평가의 기본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개발과 체제에 대한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행 역사교과서 체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평가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 1. 역사교과서 개발과 평가에 대한 논의

한국의 교과서 개발은 교육과정 개정과 적용의 후속 단계이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교과서 개발과 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은 대강화의 방향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는 종전에 내용 요소와 같은 세목을 제시하던 방식이 교과서와 학습 내용을 지나치게 규정함으로써 생기는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사과 학습 내용과 선정에 대한 세부 규정은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강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역사교과서라도 검정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상 세밀하게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대강화의 방향에서 개발된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교과서 심의기준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강선주, 2011). 예를 들어 ‘탐구활동’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심층탐구로 교과서에 실릴 수 있으려면 심사기준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심사기준을 해석하면서 탐구 활동의 수량화로 파악하거나, 심층탐구로서의 질적 평가가 어려운 점에 따라 다양성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강화된 심사기준이 작용할 수 있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보인다. ‘왜’라는 질문을 담은 양질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심사기준을 통해 규제한다면 교육과정 대강화와 이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 제작이 가능해진다는 점과 배치된다.

교과서 개발의 전문성은 교과서 개발 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김성자(2006)는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과정 전공자의 ‘중립성’과 역사교과 연구자의 ‘전문성’의 갈등을 지적한 바 있다. 교과서 개발진의 ‘전문성’과 ‘현장성’ 역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재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면면을 살펴볼 때 종전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개발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역사과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집필에 대한 실행당사자의 반성적 성찰이 다른 교과에 비해 미진한 상황이라서 이와 같은 접근은 상당히 시사점을 지닌다.<sup>2)</sup> 개별 집필자가 지닌 교과서 개발 경험은 일반화가 가능한가? 교과교육 관련 연구자 및 교사 등이 교과서 집필과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실천적 지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는 전이가 가능한 것일까?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혹은 개발 후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추후 교과서를 개발하는 다른 집필자들과 소통 가능한 방식이 무엇일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토 과정에서 가장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 기준 중 하나가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단원을 해당 시기와 주제의 전공자가 보수적으로 집필하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이를 위해 역사교과서 개발진과 수요자가 지닌 교과서관, 지식관, 역사수업관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방지원, 2009). 최용규 등(2002)이 제시한 것과 같은 이상적인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해 다른 전공자들이 얼마만큼,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좋은 교과서에 대한 정의에 좌우된다. 즉 수요자를 위한 교과서인가, 수요자에 의한 교과서인가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왜'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역사 내러티브와 탐구활동을 중학생의 인지적 수준과 흥미를 유발하는 차원에서 구상'하는 교과서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목적으로 한 교과서는 상호 배치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를 수요자가 원하는 교과서, 보다 협의의 의미로는 교사가 원하는 교과서, 즉 수요자인 교사가 역사교과의 성격에 부합되는 내용과 과제로 가르칠 수 있는 바람직한 교과서라는 것이다. 학생의 역사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돕는 교과서, 역사과의 특질에 맞는 교과서가 종국에는 수요자(교사, 학생)가 모두 원하는 좋은 교과서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또 다른 교과서 개발의 원리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교과서 개발의 전제는 학생의 흥미와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상적' 역사교과서 개발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강선주, 2011).

- 1)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과의 명제적 지식뿐 아니라 방법적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학생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소양(historical literacy)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3) 학습자의 내적 동기와 흥미를

2) 사회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혁규 (2001).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2. pp. 249-292; 최용규 (2002). 초등 사회 교과서의 개발 과정과 쟁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pp. 1-12; 홍미화 (2007). 초등 사회과 교과서 쓰기와 읽기에 대한 체험적 이해. 사회과교육연구, 14(1). pp. 25-42; 홍미화 (2009). 사회과 지역 교과서 쓰기에 대한 체험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9년 연차 공동학술대회.

유발할 수 있도록 인지적 도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4) 역사교과서 내용(지식, 활동) 선정 및 구성에서 ‘구조 개념’에 입각해야 한다. 5) 인지론적 텍스트 설계 원리에 따라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6) 심층 탐구의 기회를 통해서 역사 탐구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역사 학습의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

이처럼 역사적 소양의 측면에서 중학생에게 요구되는 ‘역사에 대한 이해, 정체성 확인, 역사 탐구 방법, 이해 및 적용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역사 인식 수준에 대한 탐색이나 역사과 내용에 대한 구조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2. 역사교과서 체제 분석의 관점

교과서 개발과 평가에 대한 논의는 역사교과서 체제가 갖추어야 할 지점을 살펴보는 타당한 출발점을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역사교과서의 형식과 체제에 대해 교육대학원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분석의 초점은 서술형식, 자료, 본문 서술, 탐구활동, 삽화자료, 평가문항, 그림 자료 등 구성요소별로 접근하거나,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나 다문화 교육, 이슬람세계에 대한 서술 분석과 같이 주제별로 접근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분적인 구성 요소를 포괄하여 역사교과서 체제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교과서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 학습 내용 선정, 학습 내용 조직, 교수·학습 활동, 학습 평가와 같은 내적 요소와 함께, 표현, 표기 및 외형체제와 같은 외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진재관 외, 2009).

이와 같은 교과서 분석 및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 진술체제에 대응하는 목표-내용-교수·학습-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전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서 분석틀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로 나누어 분석틀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우선 내적 체제에서는 교육과정 반영과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영역으로 나누었다. 특히 교육과정 반영 측면에서는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중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연결 측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역사적 사고를 경험하도록 하는 역사 탐구나 감정이입 활동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시대, 지역, 주제별 비교 방식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했는지도 분석 범주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표기·표현, 편집 디자인, 저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저자들의 구성을 현직교사, 내용전문가, 교과교육 연구자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중학교 역사교사의 참여 여부도 분석 대상이다.<sup>3)</sup>

이와 같이 기본적인 분석요소에 기초하여 구성된 분석틀은 역사과의 특질과 예비분석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교과서의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로 구성된 분석틀의 구체적 세부 기준들은 <표 1>과 같다.

3) 채택률 상중하에 따른 역사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 결과는 박진용 외,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11 참조.

〈표 1〉 역사교과서 체제 분석틀

분석 기준			출판사별 교과서 특징
내 적 체 제	교육과정 반영	역사교육 목표 설정과 구현	
		대단원 제목	
		대단원 목표 진술	
		중단원 제목	
		중단원 목표 진술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연결	
	학습 내용 선정	학습 내용의 분량	
		학습 내용의 수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 구성	
		학습 내용의 현실 세계와의 관련성	
		연구 성과의 반영	
	학습 내용 조직	단원 전개 및 구성 체제	
		단원 간의 연계성	
		각종 자료의 학습효과성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	
	교수·학습 활동	학습 참고 자료의 충실성과 유용성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가능성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참신한 방식	
		역사적 사고를 경험하도록 하는 탐구/감정이입 활동	
		비교 방식	
	평가	학습 단계에 맞는 평가 방법 제공	
		다양하고 참신한 평가 유형 제공	
		확인 학습 문제	
		수행평가	
		대단원 평가(대단원 마무리)	
외 적 체 제	표기표현	글자크기, 글씨체	
		‘날개’ 활용 용어 설명	
		구어체, 서사적 글쓰기	
	편집 디자인	흥미 유발 정도	
		지면 구성의 학습 편리성	
	저자	현직교사/중학교 교사수	
		내용 전문가	
		교과교육 연구자의 수	

### Ⅲ.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요구

역사교과서를 실제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의 수준과 교과교육의 목표에 적합한 중학교 사회(역사) 교과서 체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sup>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교과서 선정 영향 요인과 교과서 체제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1.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정 요인과 개선 요구

##### 가. 교과서 선정 요인

교사 대상 설문조사는 중학교 모집단 3,130개교(한국교육개발원, 2010) 중에서 89개교의 중학교 2학년 역사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 유층화 결과에 따라 2011년 전국의 89개교 156명의 중학교 사회(역사)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설문 내용은 전년도 8종의 역사교과서 중 한 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고려한 교과서 체제의 세부 요소들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교사들이 역사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재의 구성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2〉 역사 수업 교재 구성 방식

교재 구성	빈도(%)
1. 교과서와 칠판의 판서	24(15.6)
2.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 및 정리한 별도의 자료	64(41.6)
3. 심화보충교재를 정리한 별도의 자료와 교과서	45(29.2)
4. 교과서와 보충교재	13(8.4)
5. 기타	8(5.2)
전체	154(100.0)

4) 본고에서는 교과서의 수요자로 교사와 학생을 설정하였다. 타 교과와 공동연구 형태로 이루어진 연구 형태에서 오는 제약(박진용 외, 2011)과 함께, 교과서 집필자, 교과서 중간 매개자 등 단일하지 않은 교사 집단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수업을 통해 역사 학습 내용을 매개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의 기본적인 성격에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교과서의 수요자로서 교사를 상정하였다.

위 표가 제시하고 있듯이, 2011년 당시 교사들이 역사 수업은 학습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방식의 교과서와 칠판 판서(15.6%)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고, 심화 보충교재를 정리한 별도의 '학습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수업(70.8%)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인 역사수업 방식과 교과서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1990년대 이후 역사과에서는 학습지와 '배움책'과 같이 교사가 제작하는 교재의 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역사 교재 연구를 학습지 제작과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의 교재를 이와 같이 교사 수준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교과서는 수업에 쓰이는 교재의 일부이자, 다양한 자료의 보고로 간주된다. 이처럼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는 학습지에 주도권을 내주고, '다양하고' '참신한' 자료를 참고하고 교사의 수업 방향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인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학교급에서는 최초로 검정체제로 전환되어 발행되었다. 종전에 1종 교과서 체제로 발행된 국사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세계사 내용 영역이 별권의 역사교과서로 통합되어 제시된 것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선정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요소에 대해 교사들은 3개의 우선순위를 정해 <표 3>과 같이 대답하였다.

<표 3> 중학교 역사교과서 체제 요소별 선정 우선순위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1. 교육과정의 반영	47(30.3)	7(4.6)	11(7.4)
2. 학습 내용의 선정	47(30.3)	42(27.8)	18(12.1)
3. 학습 내용의 조직	45(29.0)	56(37.1)	25(16.8)
4. 교수·학습 방법	15(9.7)	33(21.9)	43(28.9)
5. 학습 평가	0(0.0)	2(1.3)	9(6.0)
6. 표기·표현	0(0.0)	3(2.0)	2(1.3)
7. 편집 디자인	0(0.0)	3(2.0)	17(11.4)
8. 교과서 외 참고 자료	0(0.0)	4(2.6)	18(12.1)
9. 저자 및 출판사	0(0.0)	1(0.7)	4(2.7)
10. 물리적 특성	0(0.0)	0(0.0)	2(1.3)

교사들은 역사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교과서 선정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보았다. 즉 교과서의 '교육과정의 반영(교육 목표 구현)' 및 '학습 내용의 선정'(47명, 30.3%)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지만 1, 2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학습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측면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경우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 교육의 내용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교과서의 외적인 요소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를 본인 수업의 교재 재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교사들의 반응과 일맥상통한다.

교과서 ‘학습 내용의 선정’ 및 ‘학습 내용 조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교과서의 내적 체제 중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 평가 요소는 교과서 선정시 상대적으로 낮게 고려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수준에서 참신한 학습 내용과 수업 내용으로서의 적절성이 확보된다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교사 수준에서 충분히 변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역사과 교육과정 반영 고려 정도

요인	고려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1.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목적의 구현		0(0.0)	4(2.6)	40(25.8)	78(50.3)	33(21.3)	3.90
2. 단원 목표 제시 방식의 적절성		0(0.0)	3(1.9)	27(17.4)	96(61.9)	29(18.7)	3.97
3.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연결		1(0.6)	5(3.2)	37(23.9)	81(52.3)	31(20.0)	3.88

역사과 교육과정의 반영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고려 정도는 〈표 4〉와 같다. 교과서 선정시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목적의 구현 정도가 교과서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단원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점을 ‘한국사와 세계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는지’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교과서 선정 요인: 역사과 학습 내용 선정과 조직 고려 정도

요인	고려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내용 선정	1. 학습 분량의 적절성	1(0.6)	0(0.0)	26(16.9)	74(48.1)	53(34.4)	4.16
	2. 내용 수준의 적정성	0(0.0)	1(0.6)	19(12.3)	67(43.2)	68(43.9)	4.30
	3. 학습 내용의 흥미 정도	1(0.6)	1(0.6)	23(14.9)	73(47.4)	56(36.4)	4.18
	4. 학습 내용의 실생활과의 관련성	1(0.6)	2(1.3)	43(27.7)	81(52.3)	28(18.1)	3.86
내용 조직	1. 단원 전개 및 구성 체제의 적절성	0(0.0)	1(0.6)	20(12.9)	87(56.1)	47(30.3)	4.16
	2. 단원들의 연계성	0(0.0)	1(0.6)	29(18.7)	87(56.1)	38(24.5)	4.05
	3. 각종 자료의 학습 효과성	0(0.0)	2(1.3)	15(9.7)	71(46.1)	66(42.9)	4.31
	4. 자기 주도적 학습의 용이성	1(0.6)	0(0.0)	42(27.3)	71(46.1)	40(26.0)	3.97
	5. 교실 학습 변화에 대한 대응성	4(2.6)	17(11.0)	69(44.8)	51(33.1)	13(8.4)	3.34
	6. 한 차시로 나누거나 통합하기에 용이한 구성	1(0.6)	12(7.7)	62(40.0)	65(41.9)	15(9.7)	3.52

교과서 내적 체제 요소 중 학습 내용을 고려한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특히 학습 분량의 적절성, 내용 수준의 적정성, 학습 내용의 흥미 정도가 교과서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교사들은 다른 교과와 달리 교과서 선정시 '학습 내용의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과의 특성상 현실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된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습 내용 조직' 요소를 고려한 정도를 살펴보면, 단원 전개 및 구성 체제의 적절성, 단원들의 연계성과 각종 자료(그림, 사진, 그래프, 지도 등)의 학습 효과성 측면을 고려한 정도에 대해 강한 긍정으로 답했다. 이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의 용이성, 교실 학습 변화(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교과교실제, 20% 증감 운영 등)에 대한 대응성, 한 차시로 나누거나 통합하기에 용이한 구성 등의 요소들이 교과서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게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경우, 기초적인 사실과 역사 흐름에 대한 교사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역사 과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교과서 선정 시점에는 집중이수제나 블록타임, 교과교실제와 같은 교실 수업의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교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점이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 선정시 고려한 외적 체제의 요소에 대해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표 6> 역사교과서 외적 체제 요소별 고려 정도

고려 정도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1. 표기·표현	2(1.3)	3(1.9)	44(28.4)	77(49.7)	29(18.7)	3.83
2. 편집 디자인	2(1.3)	5(3.2)	34(21.9)	74(47.7)	40(25.8)	3.94
3. 교과서 외 참고 자료	3(1.9)	9(5.8)	50(32.3)	67(43.2)	26(16.8)	3.67
4. 저자와 출판사	12(7.7)	31(20.0)	61(39.4)	41(26.5)	10(6.5)	3.04
5. 물리적 특성	11(7.1)	28(18.1)	76(49.0)	36(23.2)	4(2.6)	2.96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때 교사들은 교과서의 외적 체제 중 편집 디자인과 표기·표현을 고려한다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비해 저자와 출판사 및 교과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7&gt; 역사교과서 저자 및 출판사 고려 정도

요인 \ 고려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1. 현장 교사의 참여도	7(4.5)	17(11.0)	56(36.1)	56(36.1)	19(12.3)	3.41
2. 저자의 인지도 및 학문적 전문성	12(7.7)	23(14.8)	66(42.6)	46(29.7)	8(5.2)	3.10
3. 출판사의 인지도 및 출판 경험	11(7.1)	29(18.7)	63(40.6)	44(28.4)	8(5.2)	3.06

교사들이 역사교과서를 선정할 때 ‘현장 교사의 참여도’를 ‘저자 인지도 및 학문적 전문성’ 그리고 ‘출판사의 인지도 및 출판 경험’보다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응한 일부 교사들은 교과서 저자 및 집필진의 학력과 경력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과서 학습 내용 수준과 서술 방향이 중학교 학교 현장과 중학생 인지 수준에 적합한지 따져 물을 때 집필진 중 중학교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사회(역사) 교사들이 역사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들로는 교과서의 내적 체제, 특히 역사교과서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분량, 학습 수준, 학습 내용의 흥미 정도는 학생의 학습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교사들의 역사교과서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내용 조직에 해당하는 단원 전개와 구성 체계, 단원간의 연계성 역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교과서의 외적 체계에서는 다른 요소보다 편집이나 디자인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용이한지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교과서 체제 평가 및 개선요구

2011년 각급 학교에서 선정한 중학교 역사(상) 교과서에 대해, 사용 후 만족도와 개선 방안 에 대해 교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선 교사들에게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반영’ 정도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고, 82명의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8>과 같다.

&lt;표 8&gt;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반영 평가-교사

요인 \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1.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의 목적 구현	0(0.0)	5(6.1)	27(32.9)	48(58.5)	2(2.4)	3.57
2. 단원 목표의 전달성	0(0.0)	4(4.9)	17(20.7)	58(70.7)	3(3.7)	3.73
3.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연결성	1(1.2)	13(15.9)	41(50.0)	26(31.7)	1(1.2)	3.16

새 역사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의 목적 구현과 단위 목표의 전달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연결성을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면담에 응한 교사들 중 한국사와 세계사 결합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다수 포함되었다.

〈표 9〉 역사교과서의 학습 내용 선정 평가-교사

평가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전체
1. 학습 분량의 적절성	7(8.8)	20(25.0)	28(35.0)	23(28.8)	2(2.5)	2.91	80
2. 학습 내용 수준의 적절성	4(5.0)	7(8.8)	28(35.0)	37(46.3)	4(5.0)	3.38	80
3. 학습 내용의 흥미도	0(0.0)	7(8.8)	32(40.0)	39(48.8)	2(2.5)	3.45	80
4. 학습 내용의 실제 생활 관련성	0(0.0)	12(15.0)	30(37.5)	34(42.5)	4(5.0)	3.38	80

역사교과서의 세부적인 학습 내용 요소에 대해 교사들의 평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로 부터 개정 교과서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학습 분량의 적절성에 대해 교사들은 매우 강하게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가장 많이 응답한 '보통이다(28명, 35%)'까지 포함할 경우 70%에 가까운 교사들이 현재 사용 중인 역사교과서의 학습 분량이 적절하지 못하고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서술형으로 제안한 교과서 개선 방안과 면담에서도 두드러진다. 역사 수업, 교과서 활용 장면, 학생의 학습 차원 등 여러 각도에서 보더라도 새 교과서는 종전의 역사교과서가 비판받아온 학습량의 과다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30%의 내용 축소가 이루어지도록 권고되면서, 서술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되는 한편 학습 분량은 시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된 것이다.

〈표 10〉 역사교과서의 학습 내용 조직 평가-교사

평가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전체
1.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계의 적절성	1(1.2)	7(8.5)	25(30.5)	45(54.9)	4(4.9)	3.54	82
2. 단원들의 연계성	2(2.4)	7(8.5)	37(45.1)	35(42.7)	1(1.2)	3.32	82
3. 각종 자료의 학습을 위한 효과적 구성	0(0.0)	2(2.4)	9(11.0)	60(73.2)	11(13.4)	3.98	82
4. 자기 주도적 학습의 용이성	0(0.0)	9(11.0)	32(39.0)	38(46.3)	3(3.7)	3.43	82
5. 교실 학습 변화의 효율적 대응성	6(7.3)	22(26.8)	34(41.5)	19(23.2)	1(1.2)	2.84	82
6. 한 차시로 나누거나 통합하기의 용이성	0(0.0)	15(18.3)	39(47.6)	27(32.9)	1(1.2)	3.17	82

역사교과서의 학습 내용 조직에 대한 설문 문항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요소는 학습을 위한 각종 자료(그림, 사진, 그래프, 지도 등)의 효과적 구성(71명, 86.6%)이다. 면담에 응한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새로 나온 8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자료 구성 면에서 종전 교과서에 비해 많이 변화되고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 '단원간의 연계성', '한 차시로 나누거나 통합하기에 용이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에 비해 2011년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적용된 집중이수제와 같은 수업 변화에 대응하기에 새 교과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중이수제로 인해 많은 경우 일주일에 3-4 시간씩 배정된 역사 수업과 블록타임제, 교과교실제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교과서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표 11〉 역사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평가-교사

요인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1.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제시		0(0.0)	6(7.3)	39(47.6)	33(40.2)	4(4.9)	3.43
2.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학습 활동의 적절성		1(1.2)	8(9.8)	34(41.5)	38(46.3)	1(1.2)	3.37
3. 현실 세계와 관련된 탐구 활동의 적절한 제시 정도		0(0.0)	12(14.6)	31(37.8)	39(47.6)	0(0.0)	3.33
4. 학습에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성		0(0.0)	2(2.4)	30(36.6)	43(52.4)	7(8.5)	3.67

〈표 11〉은 교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평가한 결과이다.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 학습자의 참여 증진을 위한 학습 활동 적절성과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 활동의 적절성, 학습 자료의 충분한 제공 등 교수·학습 영역의 세부 요소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현재 역사교과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문한 결과이다.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역사교과서 변화 요구 사항-교사

요인	영향 정도	적극 반대	반대	상관없다	찬성	적극 찬성	5점척도 평균
1. 한국사와 세계사를 분권이나 별책으로 제시		7(8.5)	21(25.6)	13(15.9)	26(31.7)	15(18.3)	3.26
2. 교과서와 별도로 학습활동용 보조자료를 차시별로 제공		2(2.4)	9(11.0)	5(6.1)	42(51.2)	24(29.3)	3.94

영향 정도 요인	적극 반대	반대	상관없다	찬성	적극 찬성	5점척도 평균
3. 교과서와 별도로 심화학습자료를 주 제별로 제공(사료, 인물, 문학 등)	1(1.2)	7(8.5)	7(8.5)	37(45.1)	30(36.6)	4.07

교사들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분권화하는데 찬성(50%), 반대(34.1%), 상관없다(15.9%)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교과서와 별도로 학습활동용 보조 자료가 차시별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70% 이상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교과서와 별도로 심화 학습 자료를 주제별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1.7%의 교사들이 찬성함으로써 강한 동의를 보여주었다. 역사 교사들은 교과서의 질적 개선 못지않게 교과서를 보조하고, 수업 자료를 구성의 데이터베이스로 다양한 자료에 대해 강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8명의 중학교 역사 교사가 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서술형 반응을 유목화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3〉 역사교과서 변화 요구 사항

개선 방안	A. 학습 분량 축소	B. 수준의 적정화	C. 학습 자료 보충	D. 한국사와 세계사의 분리	E. 한국사와 세계사의 내적 연계	F. 교사용 지도자료 보강	G. 기타
교사(수)	25	6	8	4	3	3	9

무엇보다 교과서의 학습 분량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25명). 교과서 수준의 적정화에 대한 의견(6명)까지 보탠다면, 현재 역사교과서 내용의 수준과 양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습자료(8명)나 지도자료(3명)에 대한 요구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수준의 교재 제작이 학습지와 배움책 형태로 일상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내용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본문 내용이 중학생의 인지수준과 지적 흥미에 맞는 수준과 양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귀결된다. 학습 자료의 부족을 호소하며 실생활이나 탐구형 자료를 보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본문 내용이 적은데 비해 사진자료나 참고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사들은 해당 교과서가 한국사와 세계사의 결합을 특징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정교과서 활용 경험에 기초하여 한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하거나(4명), 제대로 내적인 연계를 지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는 의견(3명)을 제기하였다. 역사교과서 내용 과다와 시수 부족에 따른 진도 문제와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교사의 서술형 의견 사례이다.

일단 교과서가 3단위로 1년에 수업하기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는 교과서 외적인 내용을 덧붙여 수업해야 하는 만큼 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 3단위 타 교과와 비교했을 시 교과서 분량도 배가 넘는데다 덧붙이는 내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업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형편입니다. 아이들과 활동이라도 조금 할 양이면 어김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루한 역사수업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려 노력하지만 그러면 진도 때문에 시간을 따로 빌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조선전기는 2학년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에, 조선후기 부터는 3학년에 편재됨으로써 아이들이 내용의 연관성을 가지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조선 전기부터 3학년에 편재하든지 아님 단원 끝부분에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사와 세계사의 계통성과 통합성 및 유기적 연관성을 생각하여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단원 나누기에 불과해 내용을 연계성 있게 학습한다는 생각보다 단원을 어지럽게 섞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국사 파트끼리, 세계사 파트끼리 묶어 놓는 것이 혼란을 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중략]

기타 의견에서는 ‘교과서 서술상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저자와 현장교사와의 소통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거나, ‘집중이수제 선택과 적용을 위한 내용 분량 선택의 예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sup>5)</sup> 소수의견이나 역사를 ‘검정 교과서에서 다시 국정교과서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처럼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현장의 숨고르기가 순탄치 않음을 반영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 2. 역사교과서 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사용하는 역사교과서의 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과 동일 학교에 있는 학생들 251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 가. 역사 수업 교재에 대한 인식과 교과서 체제 평가

설문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현재 사용하는 역사교과서를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전 우선 역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5)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집중이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초기라는 시점상의 문제로 집중이수제 실시에 따른 역사과 수업과 교과서 활용의 문제는 설문에 응한 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본고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14〉 중학생의 역사 정보 습득 방법

역사 정보 습득 방법	빈도(명)	비율(%)
1. 학교 수업(교사, 교과서)	1,339	53.5
2. 개인적으로 읽은 책	1,164	46.5
3.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영화	0	0.0
4. 친구나 어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1	0.0
5. 학교나 나라에서 치르는 행사	0	0.0

응답 학생의 53.5%가 학교 수업을 통해 역사 정보를 얻었다고 답했다.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읽은 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6.5%에 달한다. 역사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로써 역사교사와 교과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개인적으로 읽은 책에 대한 의존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영향 요소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선이해에 입각하여 교과서 학습 내용에 대해 재구성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대중매체나 가족, 국가적 행사와 같은 경로를 통해 역사 지식을 얻는다고 보고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학교 수업이나 개인적 독서 활동을 통해 역사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이 역사는 교과서나 도서류의 문자 매체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좋은 역사 수업에 대한 의견

좋은 역사 수업이란?	빈도(명)	비율(%)
1. 재미있는 역사수업	1,877	75.0
2.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수업	356	14.2
3. 내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수업	186	7.4
4. 암기보다는 이해나 사고력 위주의 수업	58	2.3
5. 현실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수업	24	1.0

〈표 15〉는 좋은 역사수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의 75%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가 '재미있는' 역사 수업을 좋은 역사 수업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 교과서의 내용이 잘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수업(14.2%)과 내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수업(7.4%)이라고 응답하였다. 역사적 사고력이나 판단력에 대해 연구자나 교사가 인식하는 필요성에 비해 학생들은 쉽고, 재미있고, 배우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수업을 요구하고 있다.



&lt;표 16&gt; 역사 수업 교재 사용 현황

수업 교재	빈도(명)	비율(%)
1. 교과서만 사용	914	36.5
2. 교과서와 별도의 인쇄물(학습지)	689	27.5
3. 교과서와 보충교재, 멀티미디어 자료	284	11.4
4. 보충교재만 사용	452	18.1
5. 기타	163	6.5

현재 역사 수업에서 어떤 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과서만 사용한 다’는 응답이 914명(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과서와 별도의 인쇄물(학습지)로 응답한 학생은 689명(27.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충교재만 사용한다는 응답의 경우도 452명(18.1%)로 나타났다. 앞서 <표 2>에서는 15.6%의 교사만이 교과서 중심 수업을 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동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의 간극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제작된 학습지가 수업자료에서 우세하게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재구성한 학습자료 역시 교과서와 진배없이 ‘교과서적인’ 지식의 전달과 암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들이 역사 지식을 얻는 주로 통로로서의 교과서, 현재 역사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의존도가 높은 교재로서의 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lt;표 17&gt; 학생들의 역사교과서 중요성 인식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446	1	12	7.80	2.76

위 결과가 말해주듯,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역사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체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lt;표 18&gt; 역사교과서 학습 내용 선정 평가-학생

평가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1. 교과서의 양은 읽기에 적절한가?	161(6.4)	395(15.7)	1,143(45.5)	654(26.0)	158(6.2)	3.11
2. 교과서 본문 진술은 이해하기 쉬운가?	159(6.3)	496(19.8)	1,141(45.4)	583(23.2)	132(5.3)	3.01
3. 교과서 내용은 흥미롭고 재미있는가?	271(10.8)	532(21.2)	956(38.1)	574(22.9)	178(7.1)	2.94

요인 \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4. 교과서 내용은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는가?	270(10.8)	560(22.4)	1,118(44.6)	429(17.1)	127(5.1)	2.83
5. 본문은 중심 줄거리를 파악하기에 쉽게 서술되어 있는가?	154(6.1)	406(16.2)	1,179(47.1)	616(24.6)	150(6.0)	3.08

역사교과서의 분량이 적절한지, 줄거리 파악이 용이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는지,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역사교과서의 학습 내용과 수준의 과도함을 지적한 교사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역사교과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학습량이나 수준이 아니라, 학생이나 현실과 관련되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 학습내용으로 '무엇을' 더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려는 논의가 연구자들과 교사들의 주 관심사였다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와 같은 역사적 내용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반영하여 교과서가 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학생 수요자의 반응에서 알 수 있다.

〈표 19〉 역사교과서 학습 내용 조직 평가-학생

요인 \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평균
1. 각 단원이 공부하기 편하게 짜여 있는가?	126(5.0)	358(14.3)	1,179(47.0)	664(26.4)	184(7.3)	3.17
2. 단원들이 이전에 배운 내용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100(4.0)	306(12.2)	1,167(46.6)	741(29.6)	192(7.7)	3.25
3. 각종 자료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96(3.8)	228(9.1)	875(34.8)	980(39.0)	332(13.2)	3.49
4.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가?	205(8.2)	504(20.1)	1,053(42.0)	584(23.3)	164(6.5)	3.00
5. 단원 제목과 소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가?	103(4.1)	190(7.6)	1,173(46.8)	782(31.2)	257(10.3)	3.36

역사교과서 내용 조직의 세부 문항 중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각종 자료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었다. 또한 교과서의 각 단원이 공부하기 편하게 짜여

있다는 문항과, 단원들이 이전 배운 내용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문항의 경우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20〉 역사교과서 학습 활동 평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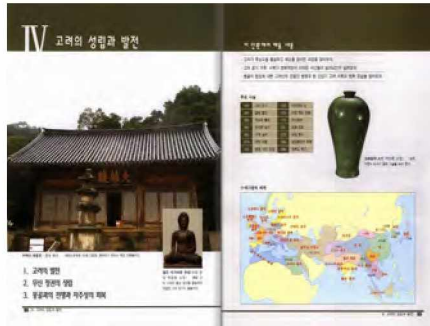

요인 \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평균
1.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80(7.2)	493(19.6)	1,242(49.5)	471(18.8)	124(4.9)	2.95
2. 현재와 관련 있는 문제를 제공하고, 이를 생각해 보게 하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164(6.5)	424(16.9)	1,279(50.9)	519(20.7)	125(5.0)	3.01
3.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가?	105(4.2)	302(12.1)	1,173(46.8)	738(29.5)	186(7.4)	3.24
4.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학습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가?	133(5.3)	365(14.6)	1,258(50.2)	607(24.2)	141(5.6)	3.10
5.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15(4.6)	308(12.3)	1,324(52.8)	597(23.8)	162(6.5)	3.15

학생들에게 역사교과서에 담긴 학습 활동에 대해 평가토록 하자 학생들은 대체로 교과서에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나. 역사교과서 대단원과 단원 도입 형식

역사교과서는 지난 십여 년간 형식과 체제 면에서 큰 변화를 맞았다. 90년대 이후 교과서 연구의 성과와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 제시 방식의 변화는 학생들의 나은 역사 이해를 보장해 주는 것일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사’ 교과서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 고려 단원의 대단원 표지를 비교하여 학생들의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역사교과서 대단원 형식-학생6)

	A	B
교과서		
학생수(비율)	955(38.4%)	1,529(61.6%)

〈표 21〉에서 보이듯, 7차 국사 교과서의 대단원보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대단원을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A 교과서에서는 수덕사 대웅전과 철조 석가여래 좌상, 고려청자, '11세기경의 세계' 지도 등 가능한 한 많이 대표적인 유물과 압축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B 교과서의 고려시대 대단원은 학습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 두 명이 월정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삽화로 시작된다. 또한 연표 형식을 통해, 시간의 흐름 위에 사건이 배치되고, 과거와 현대가 교차하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효과를 주고 있다. B 교과서 대단원 형식을 선택한 학생들의 이유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학생들이 밝고 편한 색감과 이미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도입부, 연표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 시간의 흐름위에 학습할 시기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B 교과서의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A를 선택한 학생들의 이유도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학습목표를 알아보기 쉽고, 주요사실과 문화재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 쉽다.'거나 '지도도 나와 있어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서 편하다.'와 같이 학습할 단원의 내용을 다양한 사진과 지도와 함께 요약하고 미리 제시해 주는 역할에 주목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재미'보다 '학습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학습자에게 B 교과서의 구성은 '등장인물이 고려와 상관없을 것 같아서', 혹은 '산만하고 무엇을 배울지 모르겠다.'와 같은 점이 부정적인 점으로 간주되었다.

역사교과서는 화자가 없는 서술, 목소리가 없는 서술, 중요 사실의 나열로 인해 이야기가 없는 서술, 관점과 해석이 드러나지 않는 서술이라고 비판받아왔다(이미미, 2000). 최근 교과서의 변화는 이와 같은 비판을 고려하여 단위 도입부에 내러티브적 역사 서술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아래 자료 <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6) A는 제7차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일부이다(88-89페이지). 6차 교과서에 비해 7차 교과서는 도판의 양적 증가와 함께 컬러도판의 증가가 큰 변화로 지목된다.

국사 교과서의 고려 단원 도입부로서 학습의 개요를 담고 있다. 〈나〉 자료는 B 출판사의 ‘고려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단원 도입부로서, ‘역사 한 장면: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라는 이야기로 구성하여 특정 장면에서 시작하는 영화적 기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 통일 과정과 민족 통합을 위해 주요 정책을 기술한 후 “이제부터 후삼국의 통일 과정과 새롭게 정비된 통치 체제를 상세하게 공부해 볼까요?”와 같이 역사의 다음 장면을 찾아가는 흥미로운 여정에 학생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2〉 역사교과서 단원 도입 형식-학생

	가	나
교과서		
도입부	<p>1. 고려의 발전</p> <p>학습 개요: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후 통일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성종 때에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고려는 건국 직후 복진 정책을 추진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자 노력하였다.</p>	<p>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p> <p>역사 한 장면 #12.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 태조 왕건은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면서 후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는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북쪽으로 적극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했지요. 후대의 왕들은 이를 기반으로 여러 정치 기구와 행정 조직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후삼국의 통일과정과 새롭게 정비된 통치 체제를 상세하게 공부해 볼까요?</p>
학생수(비율)	805(33.6%)	1,594(66.4)

〈가〉와 〈나〉의 편찬 시기는 10여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형식적 세련미와 독자(학생)를 배려한 내러티브적 서술 속에 반영되어 있다. 〈나〉를 선택한 2/3 이상의 학생들이 밝힌 선택의 이유가 독자를 배려한 형식상 매력에 집중되어 있다.

- 중요한 글자마다 크고 진하게 인쇄되어 핵심찾기가 좋음
- 본문에 중요한 글자들을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이야기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눈길을 끄는 디자인, 본문서술방식이 마음에 든다.
- 서술방식이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다.
- 그림에 호감이 간다.
- 어려운 말을 풀어써서 이해하기 쉽다.
- 하나만 중요하게 보여주니까 2-3개 암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

하지만 전체 응답 학생의 1/3이 <가>를 선택하면서, 형식적 세련미나 단순하고 흥미로운 내용 전개보다는 <가>에서처럼 학습 내용을 축약하고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밝힌 <가>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다’로 끝나서 딱딱하긴 하지만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다.
- 내용이 딱딱 맞춰있는 것 같고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도 나와 있어서
- 문화재의 사진을 제시하고 설명을 주는 것이 외우는 것에는 적합한 것 같다.
- 암기하기 편리하고 여러 사진으로 수업 이해도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 핵심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사진이 적당한 크기로 글과 함께 배치되었으며 주요 문제와 단어 설명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가> 교과서 단원 도입은 설명이 구체적이고 지시적인 까닭에 ‘암기’할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다시 말해 역사지식의 습득과 숙지하는 데 용이한 교과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 IV. 결론

2010년대 한국의 역사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적어도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신 대체가능한 교수·학습 보조자료 중 국가에서 인정한 교재 정도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국가수준이나 학교 수준의 공식 평가에서는 준거와 지침으로 교과서를 상정하고 이에 기대어 평가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처럼 교수·학습 상황과 평가와 같이 시점에 따라 좋은 교과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작동하고, 교사와 학생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요구 사항에 귀기울여야 한다.

새로이 개정된 교과서를 선정하는 작업에서 작동하는 ‘좋은’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 결과 역사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친 교과서의 내적 체제는 단위 목표 진술,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 학습 자료,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방식이 초점이 되었다. 설문결과는 교과서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 순위였으나, 면담에서는 학습 자료의 참신성과 다양성, 활용가능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교사의 관점에서 본 좋은 교과서와 교수·학습 내용 구성 방식은 학생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선된 교과서의 서술 형식과 내용 제시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차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교사가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역사교과서를 보는 관점이 팽배하면서 참신한 자료의 포함 여부가 교과서 선정의 주요 요건이 되었다. 이는 출판사들이 앞 다퉈 본 문 서술 보다 소위 ‘코너’라 불리는 자료 구성(삽화, 읽기 자료, 학습활동 등)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구성된 교과서가 역사수업에서는 전면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교사가 재구성한 학습지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주어진 차시동안 학습해야 할 내용은 ‘진도’에 따른 학습 속도와 국가수준의 평가체제에 의해 제약 받은 채 학습지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시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업 교재를 학습지를 가장한 교과서, 혹은 교과서 내용 이상을 담고 있는 경전적 텍스트로서의 학습지이다. 이처럼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선정 기준, 실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 교사와 학생이 드러내는 인식의 차이 등은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수요자(교사/학생) 중심의 교과서 개발이 수요자가 원하는 교과서인지, 아니면 수요자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교과서인지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경험연구에 대한 요구이다.

이와 함께 교과서와 관련된 경험연구가 축적되어야 역사교과서가 직면한 비판과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요자가 생각하는 역사교육의 목적과 효용, 역사교과서의 역할,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실제 방식, 평가에 종속된 방식이 아니라 평가를 선도하는 학습 내용과 과제의 제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가 자료집으로 기능하는 경우와 주교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교과서를 다양하게 재구성하는 맥락에서 교과서가 쓰이는 방식과 학생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실재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정-교과서 개발-교실 수업 적용과 학생의 이해’에 천착할 때 어떤 경험적 연구가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을 위해 시급히,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역사교육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교과서 개발 과정에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 연구자간 소통뿐 아니라, 교과서 개발자와 수요자와의 소통에 기반한 교과서 개발과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와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선주(2011).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및 심사 방향.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 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1-50.
- 교육과학기술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 교육과학기술부(2009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b). 검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
- 교육인적자원부(2007a).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 교육인적자원부(2007b).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 교육인적자원부(2007c). 양질의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
- 김만곤(2011). 수요자 중심 교과서.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 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1-50.
- 박진용 외(2011).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11-4.
- 방지원(2009). 2007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의 교재관과 교과서 개발. 역사교육논집, 42.
- 이미미(2000). 역사가의 사고과정이 드러나는 서술의 특징과 교재개발 방향. 역사교육, 73.
- 진재관, 서지영, 김국현, 이난영(2007).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Ⅰ) -질관리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7-5.
- 진재관, 주형미, 진의남, 함경립, 박현정, 이난영(2009).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Ⅲ) -평가 도구 개발 및 적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8.

· 논문접수 : 2013-01-01/ 수정본접수 : 2013-02-04/ 게재승인 : 2013-02-22



## ABSTRACT

### Textbook readers' assessment of and suggestions for history textbooks

Min-Jung Kim

(Assistant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eeds of teachers and students for history textbook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textbook developers to meet those needs. For this, this study examined what features of textbooks teachers consider most importantly when selecting textbooks, how textbook readers assess current using history textbooks, and specifically in what features students find useful comparing the currently-used textbooks with the previous 1990s textbooks.

Data collection included questionnaire surveys, classroom observation and interviews. Middle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participated in nation wide survey. Among them, focus groups were chosen to conduct interview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Most of all, history teachers considere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extbooks to be more important when selecting textbooks, including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contents. The survey also highlights that teachers seem to demand effectiveness and variety of visual aids for teaching. Most of teachers point out the level and amount of textbook contents inappropriate for their students. Compared to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the impact of external characteristics was relatively low.

In overall, textbook readers including teachers and students were not dissatisfied with the organization and internal aspects of textbooks but more satisfied with external characteristics of textbooks such as design, colors and editing. Especially teachers addres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history textbooks such as the weak linkage between Korean history and World history and low applicability to changing educational contexts such as block time classes.

This study suggests that history textbook developers should strive to identify the demands and needs of textbook readers as well as empirical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how history textbooks are used in classroom contexts.

Key Words : History textbook, demands and assessment of school history textbook, textbook readers,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of textbooks